

절반의 성공 여수박람회

성과

여수세계박람회가 오는 12일 93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한다. 국토의 최남단 여수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지리적 불리함과 폭염 등의 악재 속에서도 800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수도권과 영남에서 여수에 이르는 각종 SOC를 새로 뚫고 정비하는 등 여수 발전을

20년 이상 앞당겼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관람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과와 문제점, 사후활용 전망 등을 3회에 나눠 진단해본다.

▶ 관련기사 5면

여수발전 20년 이상 앞당겼다



오는 12일 93일간의 대항해를 마치고 폐막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관람객이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8일 무더위 속에서도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엑스포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세계박람회는 지난 수십 년간 국내에서 열렸던 문화이벤트 중 최대 규모였다. 박람회장 건립에만 2조 1000억원이 들어갔고, 인근 도로와 철도 등 SOC 확충에는 18조원이 투입됐다. 또 인류와 바다의 관계를 고찰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등 전시내용도 수준 높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박람회장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문화·해양·환경엑스포=여수세계박람회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수준 높은 전시 기획으로 찬사를 받았다. 향유고래를 닮은 주제관과 다도해의 풍경을 모티브로 세워진 국제관, 버려진 시멘트저장고를 활용한 스카이라이프, 바다 위 무대인 빅오 등은 '건축의 진화'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또 환경 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공공의 절규(주제관)와 바다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소녀(빅오)를 통해 바다와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등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을 거뒀다.

그림 같은 여수 앞바다를 무대로 펼쳐진 K팝 공연과 길거리 문화행사

18조 투입 전남 동부권 교통지도 바뀌 '대한민국의 보물' 남도 세계속에 빛내

도 관람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박람회 기간 총 1만3296회 공연이 열려 국내 공연계의 최고·최초·최대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엑스포 팝 페스티벌에는 국내 최정상급 가수 167팀이 매일 릴레이로 출연해 누적 70여만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94개국이 준비한 문화공연도 엑스포 홀, 해상무대, 전통마당, 해양광장 등 박람회장 곳곳을 수놓았다. 총 269회의 참가국 공연을 통해 각 국가 별 이색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변방 여수를 3시간 경제권으로=이번 박람회가 남긴 가장 큰 성과는 전남 동부권의 교통 지도를 바꾸었다는 점이다. 18조원의 SOC에 산이 투입돼 철도, 도로, 다리 등을 넓히고 새로 놓는 대규모 토목공사

진행됐다. 과거 정권으로부터 차별만 받아왔던 전남지역이 박람회를 통해 SOC를 한 번에 손을 보는 계기를 만들어 낸 셈이다. 익산과 여수를 잇는 180km 구간의 전라선 복선 전철이 개통돼 KTX 열차 운행이 시작됐고, 여수에서 서울까지 3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주~광양과 목포~광양 고속도로, 여수~순천과 덕양~우두 국도,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이순신대교 등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산업단지진입도로, 시내도로와 주차장, KTX철도, 여객선 바닷길과 여수공항 등이 개통되거나 새 단장했다. 광양만을 가로질러 여수까지 연결되는 이순신대교는 서울 남산(262m)보다 높은 주담(270m)과 바다 위에 쏘 뻗은 긴 상관(1545m)으로 관람객들을 압도했다.

◇여수·전남 브랜드 세계로=최근 박람회에 참가한 미국·일본·중국·이탈리아·호주 등 45개국 80명의 각국 대표단이 순천만, 곡성 기차마을, 광양 청매실 농원 등을 다녀갔다. 또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많은 하루 2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여수를 찾아 전남의 멋과 맛을 즐겼다.

해의 언론의 극찬도 이어졌다. 프랑스 르몽드는 '대한민국의 보물 전당이 새롭게 빛난다'라는 제목으로 남도지역을 엑스포와 함께 묶어서 소개했다.

수많은 관람객이 여수를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곡성 기차마을과 순천만 등 여수 인근 지역의 관광지도 새롭게 주목받았다.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곡성 등지는 예년보다 2~5배가량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박람회를 통해 아름다운 전남을 널리 알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전남지역의 SOC를 확충하고, 전남을 국내외에 알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고뇌속 총장직선제 폐지 강행
김윤수 전남대총장 인터뷰 ▶ 5면

철저히 광주다운 전시 준비했다
김선정 비엔날레감독 인터뷰 ▶ 12면

알림

제2회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9월 16일 개막... 64개팀 참가 3개월 열전



광주일보사가 광주·전남 지역 사회인 야구 활성화를 위해 제2회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대회는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 리그로부터 경기력 기준으로 4개 그룹 각 16개팀을 추천받아 모두 64개팀이 토너먼트를 벌이게 됩니다.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이번 대회에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기간: 2012년 9월 16일 ~ 11월(매주 토·일요일)
- 대회장소: 광주·전남 지역 지정구장
- 경기방식: 천왕·지왕·인왕·전남 토너먼트
- 시상: 각 토너먼트 우승, 준우승, 공동3위, 감독상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등
- 자료확인: 광주일보 홈페이지 참조
- 문의: 광주일보 문화사업국(062-220-0541)

光州日報社



삼바축구에 막혀... 한국 결승 진출 실패

관련기사 3·14·15면

사상 첫 올림픽 4강에 오른 한국 축구대표팀이 '삼바축구'의 벽은 넘지 못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7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2012 런던올림픽 4강전에서 0-3으로 완패했다. 아쉬운 심판 판정과 함께 주전 골키퍼 정성룡의 공백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어려운 승부가 됐다.

박주영 대신 이동원과 김현성을 투입으로 내세운 한국은 경기 초반 적

11일 새벽 日과 3·4위전

극적인 슈팅으로 브라질을 공략했다. 전반 13분 페널티 박스내 점전 상황에서 브라질 수비수가 발을 높게 들었지만 주심의 페널티킥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다. 흐름을 뺏긴 한국은 전반 38분 브라질의 로물루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전반을 마감했다.

후반 시작 3분 만에 한국이 동점골의 기회를 잡았지만 이번에도 아쉬운 판정이 나왔다. 공격을 펼치던 김보경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 발에 넘어졌지만 역시 주심의 휘

슬은 울리지 않았다.

결국 한국은 후반 12분과 19분 레안드루 다미앙에게 연달아 골을 허용하면서 결승진출이 무산됐다.

영국과의 8강전 승부차기에서 선방을 선보였던 골키퍼 이범영이 평범한 슈팅을 빠트리는데 등 수비에서도 아쉬움이 남았다.

한편 다른 준결승 경기에서는 멕시코가 일본을 상대로 3-1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진출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동메달을 놓고 한국시작으로 11일 오전 3시45분 한·일전이 펼쳐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현우 레슬링 8년만에 金 女핸드볼·배구 준결승 진출

한국 레슬링의 '희망' 김현우(24·삼성생명)가 8년 만에 금메달 소식을 알렸다.

김현우는 7일(현지시간) 열린 2012 런던올림픽 그레코로만형 66kg급 결승전에서 타마스 로린츠(헝가리)를 세트 스코어 2-0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현우는 1세트 수비에서 점수를 내주지 않으며 첫 세트를 가져간 뒤, 2세트 파테르 공격에서 들어던지기를 시도하던 중 로린츠가 수비과정에 서 다리를 잡아 방해했다는 판정을 받으며 2점을 얻었다.

태극 남자들도 메달을 향한 투혼으로 승전보를 알렸다.

유럽 강팀들을 꺾고 8강에 오른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세계 랭킹 2위 '장신군단' 러시아마져 24-23으로 막아내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경기종료 직전 터진 빅토리아 질린스카이트의 슛을 봉쇄하며 8회 연속 올림픽 4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한국시각으로 10일 오전 1시 노르웨이와 준결승전을 치른다.

여자배구대표팀도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를 세트 스코어 3-1로 격파하고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구레슬

신 김연경이 4개의 블로킹 포함 28득점을 올리며 해결사가 됐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이탈리아를 꺾은 여자대표팀은 한국시각으로 9일 오후 11시 미국을 상대로 결승진출을 노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本社人事

▲顧問 朴鉉奎

(8월 9일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아시아 문화의 꽃이 피다

Blooming Asian Culture

2012아시아문화주간 2012 ASIA Culture Week

8.19~8.28 광주광역시

1 **꿈꾸는 마미야 공연**
사람과 인형이 노는 판타지아
2012. 8. 19(일)
16:00~17:00, 20:00~21:00
빛고을시민문화관

2 **2012 아시아문화포럼**
2012. 8. 20(월)~8.22(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전통문화관

3 **제2회 아시아청소년 문화축전**
2012. 8. 20(월)~8.22(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전통문화관

4 **한국-중앙아시아 문화장관 회의**
2012. 8. 21(화) 09:30~12:00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5 **아시아 창작 시나리오 공모. 본선 심사**
2012. 8. 21(화) 14:00~17:00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6 **아시아 전통음악 및 무용 아카이브 워크숍**
2012.8.20(월) 13:00~15:20
2012.8.21(화) 10:00~18:00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7 **하나 되는 아시아 -아시아 전통음악 및 무용 공연**
2012. 8. 21(화)~8. 22(수)
19:30~21:00
빛고을시민문화관

8 **아시아 전통음악 및 무용 위원회 회의**
2012. 8. 22(수)~8. 23(목)
09:30~17:00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9 **페이퍼로드, 지적 상상의 길 전시**
2012. 8. 19(일)~8. 26(일)
아시아문화마루

10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세미나 및 전시**
2012. 8. 27(월)~9. 1(토)
아시아문화마루, 광주시립미술관

www.cct.go.kr
2012 아시아 문화 주간 문의
T. 02-320-8815 / 070-7825-2801